

수곡리·首谷里

## 수곡리·首谷里

<구연자 : 아산시 송악면 수곡1리 한정현씨 (62세)>

아산시 송악면 수곡2리 김병숙씨 (72세)>

수곡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머리서리와 금계리 마을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곡리의 총 인구는 178명으로 총 74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곡리는 산속에 위치한 마을로 송악면의 북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수곡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약물이 있어서 아픈 머리를 감으면 특효가 있으므로 머리서리 또는 수곡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계리, 명곡리와 신창군 남하면의 외덕암리(비지)를 병합하여 수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수곡리 위치도 >



### ☒ 머리서리, 금계리 마을 (수곡리)

수곡1리는 머리서리, 비짓골, 사태, 사태말, 옷말로 이루어 졌으며, 머리서리는 원래 머리실이라 하여 베틀에 사용되는 말이며, 주위에는 베틀에 관한 마을이 많다. 머리서리 위쪽으로 사기장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기를 구웠다고 한다. 예전에는 조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 없다고 한다.

수곡2리를 금계리, 명지계미 로 이루어 졌으며, 다른 조사 자료에는 쇠금 자와 닭계 자를 쓰는데 원래는 비단금, 시내계 자를 써서 비단 바닥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며, 명지계미 마을은 머리서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옥녀직금형"의 명당지역으로 지형이 명주 비단옷같이 아름답다하여 명주금의라 했는데 변하여 유래 되었다 한다.

< 조사당시 수곡리 마을 관련 사진 >



### 1) 위치

머리서리 마을은 위도 36-43-30, 경도 126-57-0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송악저수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동화초등학교가 나오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수곡리 팻말이 나오는데 그곳이 1리이다. 1리는 입구에서 마을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금계리 마을은 위도 36-42-00, 경도 126-57-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수곡리 1리에서 도로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주유소가 있고,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이 금계리이다.

### 2) 현황

머리서리는 남자 58명, 여자 58명으로 총 116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36세대에 이른다. 주민들 전부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금계리마을은 남자 20명, 여자 42명으로 인구수는 적은 편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두배나 많이 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구수는 38호로 이 마을 역시 농업을 위주 생활하고 있다.

####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머리서리 마을	116명	58명	58명
금계리 마을	62명	20명	42명

####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회사
머리서리 마을	100%	100%	-
금계리 마을	100%	98%	2%

머리서리 마을 전체의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논 19.2ha, 밭 10.4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와 분무기가 가장 많으며, 각종 농기계는 약간씩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금계리 마을 전체의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논 13ha, 밭 8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양수기, 분무기, 예취기등이 있고,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머리서리마을	29.6ha	19.2ha	10.4ha
금계리 마을	21ha	13ha	8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노인회관	마을문고
머리서리 마을	1개소	1개소	-	-
금계리 마을	1개소	1개소	-	-

머리서리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42%로 제일 많으며 강씨 8%, 박씨 11%, 신씨 11%, 한씨 14%, 기타 성씨가 14%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고령편이나 40대~60대가 가장 많다.

금계리 마을은 김씨 24%, 기타 성씨 78%가 살고 있다. 연령층은 60대가 가장 많다. 두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본래 동화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였으나 폐교가 되어 모두 송남 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강씨	김씨	박씨	신씨	한씨	기타
머리서리마을	36호	3호	15호	4호	4호	5호	5호
금계리마을	38호	-	9호	-	-	-	29호

- 최고령자

머리서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 원상 할아버지로 올해 90세이시며, 건강하신편이며, 금계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태호 할아버지로 이분 역시 올해 90세이시지만 아직도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경관

머리서리는 도로를 아래쪽으로 접하고 있는 마을이며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보인다. 가옥들은 산과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산 왼쪽으로는 논들이 길게 늘어 서 있다. 또한 도로 바로 아래쪽에도 논들이 약간 있다. 마을 뒤에 있는 산은 큰 봉우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 골짜기가 하나 있다.

금계리는 머리서리에서 윗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로 큰 길 옆의 산 밑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왼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띤다.

#### 4) 마을 변천과정

머리서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약물이 있어서 아픈 머리를 감으면 특효가 있으므로 머리서리 또는 수곡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계리, 명곡리와 신창군 남하면의 외덕암리(비지)를 병합하여 수곡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으며, 금계리 마을은 1914년에 수곡리로 통합된 후 해방전 두 마을로 나뉘었는데 아래쪽 산 밑의 마을을 2구로 정해 금계라 부르게 되었다.

#### 5) 입 향

머리서리에 터를 잡았던 성씨는 김해 김씨와 평산 신씨였다고 한다. 현재 16대까지 살고 있으니 형성년대는 서기 1520년경 약 48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 김씨는 북사골이란 곳에서 살고 있었고, 평산 신씨는 옷말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서로 모르다가 아침, 저녁으로 닭소리와 개소리가 들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서로 알게 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계리는 김해 김씨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특히 명지계미에 김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을 처음 형성하고 산 것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다고 하며, 머리서리와 비슷할 것이라고들 한다.

#### 6) 지 명

##### 十 머리서리 마을 지명

- 머리서리: 곡에서 머리를 감으면 아픈 머리가 나았다고 함.
- 비짓골 : 머리서리 위쪽에 있는 마을.
- 사태 : 머리서리에서 들어가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
- 사태말 : 수곡1구의 주된 마을로 18호가 운집해 있음.
- 옷말 : 사태말의 윗쪽에 있는 새로 형성된 마을로 4호가 운집해 있음.
- 보과골 : 사태말 앞의 들로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들.
- 서낭당 : 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괴목 2그루와 자연석이 있음.
- 성황당이 : 머리설에 있는 서낭당으로 지금은 괴목만 남아있음.
- 넘말 : 사태말 초입에서 우측 능선 너머에 있는 마을.
- 골말 : 사태말 초입에서 우측 능선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음지뜸 : 머리서리의 음지쪽에 있음.
- 진들 : 사태말 앞의 들로 천수답으로 이루어진 들.
- 덕고개 : 사태말에서 도고쪽의 이루어진 들.
- 머리설 고개 : 금계와 명지계미를 연결하는 고개

##### 十 금계리 마을 지명

- 금계 : 명지계미 옆에 있는 마을. "금계포란형"의 명당이 있다 함.
- 명지계미 : 머리서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옥녀 직금형"의 명당 지역으로 지형이 명주 비단 옷같이 아름답다하여 명주금이라 했는데 변하여 명지계미라 부름.
- 달아맨 산 : 금계 초입에 있는 산.
- 명지미 산 : 금계 뒷산.
- 머리설 고개 : 금계와 명지계미를 연결하는 고개.
- 금계 서낭당터 : 금계 입구에 서낭터로 지금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없어짐.
- 장군석(산신당) : 금계마을의 수호신격으로 산신당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월 14일 산신당앞 장군석에 제를 지내고 있음.

## 7) 전 설

두 마을에 특별하게 전해오는 전설은 없었으며, 단지 머리서리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마을이 벼들에 관련된 마을로 옥녀가 벼를 짜는 형국이라하여 옥녀지금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머리서리 마을에서 정월 14일 산신당 앞에서 장군석에 제를 지내왔으나 현재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연반계가 있는데 이는 초상이 나면 서로 돕는 계조직으로 초상이 나면 쌀 두가마를 마을 사람들끼리 모아 주고 상여를 메주고 있다고 한다.

금계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전통놀이는 없지만, 오랜 옛날부터 지내어오는 산신제와 노신제가 있는데 명곡리 산꼭대기에 산신당이 있어 엄격하게 지내왔으며 현재는 예전만큼 엄격하지 않다고 한다. 노신제는 6.25전까지는 이월 상달에 지냈고 그 이후로는 정월 열나흘에 지낸다. 명지계미에 있는 돌장승에다 지내며 전에는 명지계미 사람만 지냈는데 현재는 마을 주민이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 十 조이숙

선생은 조선 중엽 서기 1616년 인조때에 출생하였다. 본관은 양주요 자는 경희이며, 호는 달봉이다. 부친은 중가서 대부 조상우 선생이시고 출산은 아산이시다. 어려서부터 효자인 아버지 시암 선생을 본받아 충성심이 강하고 또한 효성도 지극하였다. 선생의 충성심에 한 예로 1649년(인조 27년) 인조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국상기간동안 채식만 하셨다. 이로 인하여 이듬해 병을 앓아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신 후 대덕군 회덕면 사무소 앞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찬하시고 동군 송준열 선생이 쓴 '몰세 불망비'가 세워졌다. 그 후 60년후에 충청도 유림대표 김석대등의 상소로 첩비도 세워졌으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종때는 선생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하고 또 정려를 내려 선생의 부친이신 시암 조상우 선생과 함께 온양읍 온천리 산 18번지에 잇달아 정문이 세워졌다. 묘소는 송악면 수곡리 산 125-1번지에 있다.

## 10) 종교단체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으며, 마을사람들 중 일부는 송악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금계리 주민들은 기독교나 불교보다도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

## 11) 공장현황

주변에 있는 마을이 대부분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여건이 안좋아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12) 마을의 특성

머리서리 마을의 특성으로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정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이곳 마을사람들은 아직도 서로 돕는 이웃간의 정이 돈독하며, 외지 사람을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해 주는 여유로움이 있는 마을이었다.

금계리 마을도 머리서리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자연 농업시범 마을로 3년전부터 애호박과 취나물을 재배하고 있어 머리서리 마을보다는 부유한 편이며 마을에서 30년이상 살고 있는 가구가 거의 20가구 정도나 된다. 두 마을 모두 교통편이 많지 않아 외출의 어려움이 있다.